

김희욱

Kim

Hee-Uk

나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포착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상황이나 상태 등을 재조명한다. 내가 집중해온 소재들은 주로 감정과 무의식에 관련된 현상과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이다. 나는 여러 사건과 현상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의 표면 혹은 내면에 부유하는 이미지와 의미들을 재조합하거나 수집된 현상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혹은 서사를 영상과 설치를 통해 이야기한다.

나는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는 인간의 심리와 대처 방식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감정의 위치와 시스템이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들에 관심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감정은 점차 쓸모없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람들은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하기를 꿈꾼다.

나는 사람들이 가장 조절하기를 바라는 감정들, 즉 부정적 감정들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이 감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불안과 질투를 두 번의 개인전을 통해 이야기했고 현재 슬픔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열린 두 개인전에서는 서사의 집결체인 감정에서 서사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시각적인 요소를 이용해 부정적 감정에 대한 도피와 은폐에 대해 표현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그 후의 작업들에서는 서사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의 시각적 시도들이 이후 작업들의 시각적인 연출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시각적 시도들은 이전부터 관심있었던 주제인 ‘추상적 시각 언어로 특정 상태, 감정, 분위기 표현하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Using elements which I capture in a variety of experiences, I form a narrative. By reconstructing these elements by different methods, I shed new light on and reexamine the situation. The subjects I focus on are mainly phenomena related to emotions and unconsciousness and attitudes that respond to them. I collect various events and phenomena. Then, based on that, I recombine images and meanings, which are floating on the surface or hidden inside, and create new narratives. Finally, I present the images or narratives, which were made in this way, through videos and installations.

My interest is in emotions, specifically the mental states and coping methods of responding to negative emotions, the role of emotions in society,

and the ways in which social systems use these emotions. In modern society, emotions are increasingly considered unhelpful and dangerous, and people dream of complete control of their emotions. I address the attitudes of modern people toward negative emotions that people most want to control.

I presented anxiety and jealousy in my two solo exhibitions and currently have been working on sadness. In the previous two solo exhibitions, I tried to remove the narrative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emotion which is a collection of narratives; and express, by the use of visual elements, methods of escape from and concealment of the negative emotion. Subsequent works are actively involved in narrative,

감정과 함께 관심 있는 주제는 픽션과 논픽션이다. 내가 재현해내는 사건 혹은 상태(픽션)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레이어와 현실(논픽션) 사이에 얇은 두께의 간극이 형성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은 마찰에 흥미를 느낀다. 또한 진짜 같은 가짜와 가짜 같은 진짜를 작업의 소재로써 자주 사용한다. 픽션에 집착하는 태도, 픽션화 된 논픽션, 픽션과 논픽션의 무게감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다.

and previous visual attempts influence the visual presentation of subsequent works. These visual attempts were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topics of interest: expressing specific situations, emotions, and atmospheres with abstract visual languages.

Along with emotions, fictional and nonfictional topics interest me. A thin gap is formed between a layer of fiction, based on events or states that I represent, and the reality of nonfiction. I am interested in the light friction that occurs in this gap. Also, imitations that appear genuine and genuine things that appear to be imitation are often used as the subjects of my work. I am also interested in and working on the attitude of obsession with fiction, the fictionalized nonfiction, and the point at which the

balance of fiction and nonfiction chang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그 후 어린 저는 그런 할머니의 은혜도 모르고 항상 부끄럽고 꿈주리아 하는 생활에 점점 비틀어져만 갔습니다.
 * Afterwards, in my youthful folly, I had no idea of her love and kept getting deviant because I didn't like the hungry and poor life.

슬픔채널 Sadness Channel
 단채널 영상, 19'40", 2019
 single channel, 19'40", 2019

채널 1 Channel 1
 단채널 영상, 3'25", 2019
 single channel, 3'25", 2019



슬픔채널 Sadness Channel
 단채널 영상, 19'40", 2019
 single channel, 19'40",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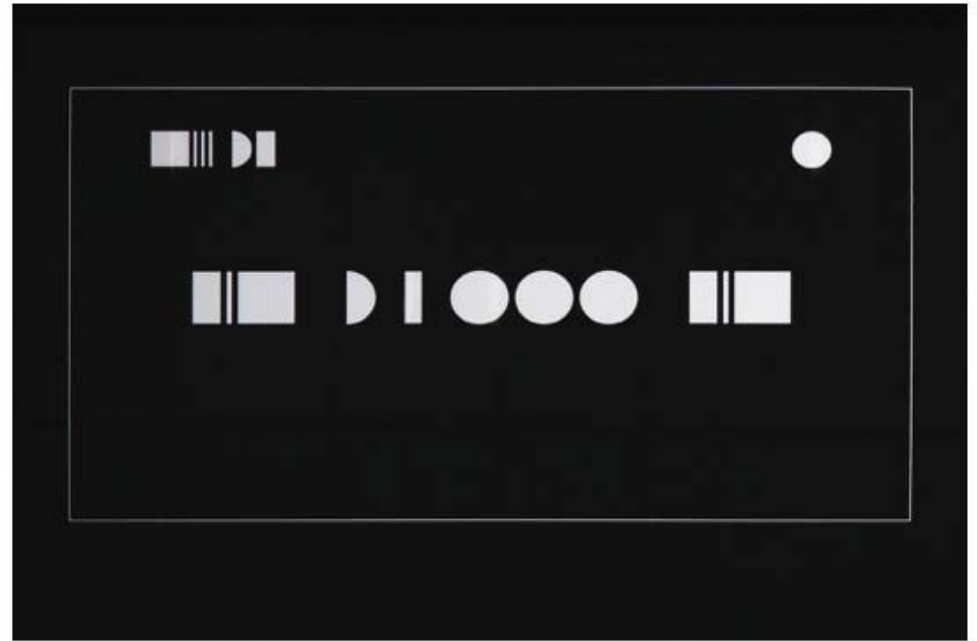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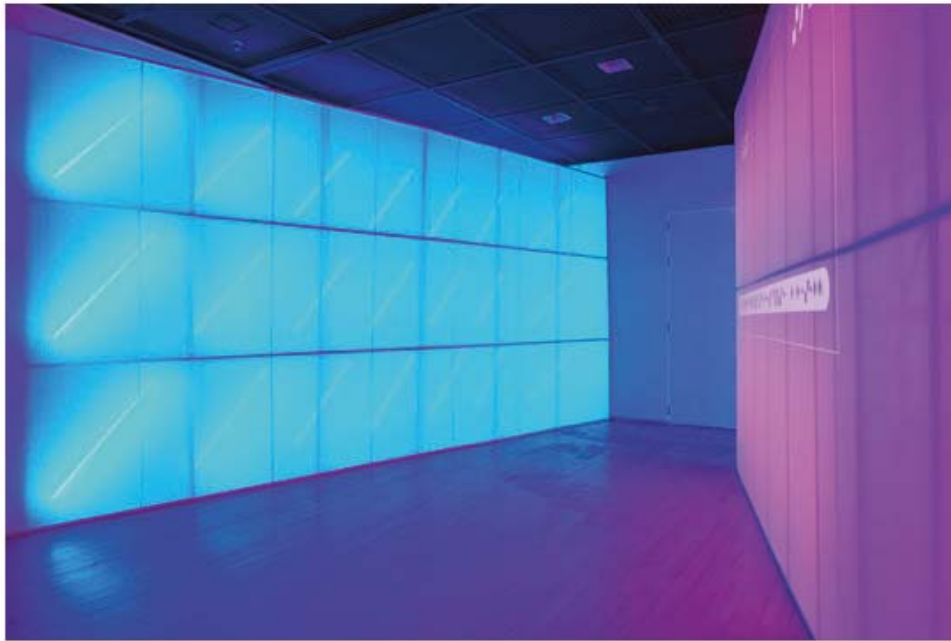




TBL, The Best Life
 단채널 영상, 14' 30", 2019
 single channel, 14' 30", 2019



TBL, The Best Life
 가변설치, 2019
 Variable installation, 2019



정체성 만큼이나 기만적인, 실제 만큼이나 잔인한 As deceptive as stasis, as being as cruel
 점멸하는 조명, 천을 이용한 파티션, 영상, 2019
 intermittent flashing lights, installing partitions, video, 2019

작년보다는 덜지 않았던 선선한 여름날, 각자 앞둔 전시의 번역자를 찾기 위해 서로 문자를 보내던 중 갑자기 김희옥 작가의 글을 의뢰받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동년배 작가끼리 하는 대화가 나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라는 한통의 문자에 나는 결국 설득당하고 말았다. 지금은 떠나 온 독일 슈투트가르트 집에서 나는 이 흥미로운 작가에게 할 질문들을 수첩에 적어 왔다.

이 인터뷰는 2019년 9월 세마 벙커에서 열린 기획전 <줌 백 카메라>에서 전시된 <TBL, The Best Life>와 <비법> 시리즈에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동년배의 여성 작가로서의 삶에 관한 대화들을 포함한다. 물론 우리가 나누는 질문과 답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 대화가 어떠한 마음으로 작업을 대하고 어떻게 삶을 꾸려갈 것인가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민선 : 2018년에 우리 서울문화재단에 기금 관련해서 만난 적 있지 않았나. 그때 개인전 계획이 3개라고 들었다. 아쉽게도 ‘훑쳐보는 암살자’를 직접 보지 못했다. ‘질투’에 관한 전시였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불안’에서 출발한 듯하다.

김희옥 : 일전에 이야기했던 개인전 계획들은 현재 조금씩 바뀐 상태. 그때 계획했던 건 ‘감성지능 시각 실험실’이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 감정들 - 사람들이 가장 느끼길 꺼려 하지만 가장 자주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 - 불안, 질투, 슬픔, 분노를 하나씩 다루는 프로젝트였다. 그 당시에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프로젝트 제목에 붙였는데 두 번의 전시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수정되었다. 현재 슬픔에 관한 전시를 준비 중이고 내년에는 분노를 다룰 생각이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들,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의 특정 감정의 과잉, 감정의 이상 변형 그리고 감정의 과도한 억압을 느낄 수 있다. 이 현상들은 나의 어린 시절 기억들, 20년 전 유행한 대니얼 골먼의 EQ 교육 열풍 - 감정을 잘 조절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자는 내용의 교육법-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감정 표현에 인색한 문화와 뒤섞여 나에게 하나의 큰 아이러니이자 사회적 기현상으로 다가왔다. 감정의 성공적인 조절을 교육받고 끊임없이 요구받아온

우리 모두의 감정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감정에 관련된 나의 작업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선 : 2019년 9월 세마 벙커에서 열린 <줌 백 카메라> 기획전에서 <TBL, The Best Life> (이하 ‘TBL’) 영상 작업을 봤다. 불안과 관련된 작업.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이버적 극복 방법론’을 유튜브 스트리밍의 형식을 빌려 설명하는 것 같았다.

김희옥 : 맞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 중 삶, 위기, 감정 등 무겁고 어려운 인생의 장기적 과제들을 단순하고 쉬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작업화한 것이다.

이민선 : 1인 미디어나 SNS가 특별할 것도 없는 요즘에는 정보가 폭발할 듯이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망설이게 되지 않나. 미술계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이용한 작업과 전시가 최근 들어 많았던 것 같다. 나 또한 1인 미디어를 이용한 작업을 쉽게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

김희옥 : 과거에는 대중매체와 그것을 소비하는 개인 간의 관계(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가지는 관계성이 단순하고 확실했다. 하지만 1인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발전, 확장해나가는 현시대에는 미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 지고있다. 이 맥락에서 ‘TBL’에 등장하는 여성 유튜버의 캐릭터를 입체화 시키려고 했던 시도(생산자와 소비자의 모호한 경계를 보여주는)가 있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1인 미디어 시대의 환경과 개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민선 : 개인적으로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유튜버라기보다는 홈쇼핑의 쇼호스트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은 홈쇼핑이던지 유튜버던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명명할 수 없는 사짜(?)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오히려 좋았다. 유튜버나 홈쇼핑이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들을 지배하는 프레임이 확실히 보이지 않나. 영상을 막 뽑아내야 하기에 그러한 단순한 프레임의 상정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김희옥 : 기본적으로 이 작업을 진행할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둔 이미지들은 세 가지이다. 유튜브 방송, 홈쇼핑, 사이버 종교 교주. 이 세 가지가 모두 뒤섞여 다양한 선택들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 보니 이 작업이 단순히 유튜브

방송만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작업 진행 과정에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 인터넷 페이지 자체를 전시장에 올려 영상을 플레이하는 것은 어떨것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 영상이 너무 확실한 유튜브의 영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실행하지 않았다. 유튜브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씌워 버렸을 때 만들어지는 또 다른 프레임들이 싫었던 것 같다.

이민선 : 우선은 왜 극복 방식을 다소 황당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사이비적 극복’이라고 읽는 게 맞을까? 나무, 컬러렌즈, 명품 로고라는 세 가지 극복 방안에 공통분모가 있다. 금방 알아챌 수 있던 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요즘 진짜가 어디 있을까. 따지고 보면 진짜 나무, 진짜 안구, 진짜 명품도 불안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을까? 불안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김희욱 : 우선 실제 인터넷에 불안에 관한 다양한 극복 방법들을 찾아보면 나름 수궁이 가면서도 다소 황당하다. 그러한 극복 방법들이 수없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고 그러한 태도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진짜와 가짜’라는 개념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관객으로서 잘 읽어 준 것 같다. 이번 단체전에 불안을 주제로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에 머릿속에 계속 머물렀던 단어는 ‘완벽한 가짜’였다. 가짜가 넘쳐나고 가짜가 진짜보다 완벽하다. 이것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불안해진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가짜를 더 많이 소비한다. 극복 방법 그 자체도 ‘완벽한 것처럼 들리는 가짜 비법’이다.

이민선 : 같은 전시 <줌 백 카메라>에서 설치된 <비법 1 - 눈>, <비법 2 - 나무>, <비법 3 - 심볼> (이하 ‘비법’) 같은 경우 스티로폼으로 잘 마모된 나무 무늬, 눈알, 명품 로고 같은 게 있었다. 첫 느낌은 참 작업들이 잘생겼다, 멀쩡하다, 라는 것. 이전의 작업들보다 더 정제되어 보였는데 외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업 과정이 투명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이걸 만들고 뽀고 이런 게 다 그려지더라. 이전의 작업에서는 관객을 더 막연하게 하고 언어를 흐리게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작업은 오히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김희욱 : 이전 작업들에서는 ‘시각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대제목에 붙였듯 감정과 상황을 최대한 조형언어를 통해 이야기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양한 표현 방식 중 하나를 극대화하여 실험해 본다는 뜻이었다. 그렇다 보니 이전 작업들 - 불안, 질투 시리즈의

작업들에서는 ‘비법’에서 느껴지는 명료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민선 : 나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 관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고려하게 되면 무력해질 때가 있다. 물론 작가가 그런 모든 관객을 컨트롤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가?

김희욱 :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1. 나만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으로 2. (적어도 텍스트를 읽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게 3. 설득력 있는 공간 동선을 통해 전달하자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관객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강요하고 싶다는 것과 비슷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민선 : 나는 소심해서 작업할 때 많이 망설인다. 작업이 하나의 ‘발언’이자 ‘정치’라는 느낌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못해도 되긴 하지만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김희욱이 작업 과정에서 망설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반적으로 가장 망설이는 부분, 그래서 끝까지 작가 김희욱을 괴롭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김희욱 : 작가는 평생 계속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언제가 되건) 마스터 피스를 뽀아낼 작정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을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실험실이란 말을 써가며 실험도 하고 그 실험으로 개인전도 했다. 결국 완전한 작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할 때 망설임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다. 가장 조심하게 되는 부분, 스트레스받게 되는 부분은 게으른 작업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안일하고 게으른 작업, 되는 대로 한 작업이 가장 지양하는 부분이다. 미술계의 경향과 사회적 이슈들을 체크하지 않는 것 또한 게으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민선 : 작업이 본인에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추상적인 질문이고 답도 유동적이리라 생각한다. 나는 요즘 작업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작업에게 통제당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느낌을 받더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김희욱 : 나에게 작업은 삶 속에서는 또 다른 직업, 일이고 정신세계 속에서는

일종의 해방구, 발언 채널이다.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해방적 (비)현실과 극히 개인적인 발언 채널(무엇이든 발언할 수 있는)을 가짐으로써 지불하는 기회비용은 상당히 크지만 이것에 중독(?)되기에 계속 작업을 이어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민선 : 동년배로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다. 20대 때는 야망도 있고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랬다. 오히려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보다는 더 현실적이 되더라. 40대가 되었을 때엔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더 오래 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다. 물론 이 생활을 꾸려 나간다는 게 당장 내일도 모레도 보장될 수가 없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는 것이 어렵기는 하다. 지속 가능한 작가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희옥 : 지속 가능한 작가의 생활의 방식은 작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각자가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 본인의 의지와 끈기인 것 같다. 물론 주어지는 환경과 기회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은 작업에 대한 작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장 1, 2년 뒤 미래의 생활은 어느 정도 그려져도 5-10년 뒤 혹은 그 이후의 미래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그 정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 또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내 삶이 작업을 위해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10년, 20년 후에도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물들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

이민선 : 마지막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가?

김희옥 : 현명한 작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눈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고 싶다. 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 미래는 모르겠다. 작업이 나의 행복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즉 나를 절대적으로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면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그만두게 되는 것이 두렵지는 않다.

이민선

이민선은 주로 영상을 매체로 다루는 시각예술 작가이다.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왕립예술학교 조소과를 졸업했다. 개인전 <실제 있었던 일인데>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서울, 2018)를 열었으며 올3월, 개인전 <필사의 유머>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20)을 마무리했다.